

세레 요한

**핵심 구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레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11**

**선택한 성구:
마태복음 11:7-15**

말라기와 이사야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할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1; 이사야 40:3-5; 마태복음
11:10). 이 특별한 대사가 바로 세레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에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 대해 "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 주님의 오심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가복음 1:5-17

예수님이 서른 살이 되셨을 때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던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2-23; 요한복음 1:19-34

나중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게 핵심 구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천국"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왕국의 영적 단계를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죽음 당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41, 로마서 12:1, 히브리서 3:1). 이러한 하늘의 부르심은 복음 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부여한 칭호 중 하나는 "신랑"입니다.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한 그룹으로서 그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7, 22:17).

세레 요한은 "신부를 가진 자는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는 서서 듣는 자는 신랑의 소리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29). 요한의 사역은 곧 종말을 맞이할 구 유대 시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의 초대를 열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을 기뻐했지만 "신부"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세레 요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함께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땅의 왕자"가 되어 왕국의 지상 단계에서 모든 인류의 교사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28; 시편 45:16; 히브리서 11:4-40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레 요한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이전에 살았던 성경에 언급된 모든 의로운 인물들이 복음 교회보다 덜 충실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전한 영적 존재로 부활시켜 불멸과 신성한 성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4; 로마서 2:7; 6:3-5; 디모데후서 2:11-12